

광주일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량을 뽑는 내년 6·4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현재 거론되는 광주·전남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을 소개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재선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시민활동가 등 중량감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본보 자체 심의를 거쳐 입지자들을 소개한다.

이낙연·주승용·김영록 '3파전'...安신당 김효석 주목

전남도지사

차기 전남도지사 선거권은 일찌감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3선인 박종영 전남지사가 선거법상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어 차기 전남지사 자리가 사실상 '무주공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4선의 이낙연(한평·영광·담양·장성) 의원과 3선의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올해 초부터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끄러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재선의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도 뒤늦게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3파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출마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흘러 나오고 있어 민주당 후보 경선 판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경제부에 입문한 뒤 16·17·18·19대 국회의원에 대체로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대변인과 사무총장, 원내대표, 대표 비서실장 등 중책을 맡았고 건설교통·보건복지·기획재정·예산

전남 곳곳 돌며 '총성 없는 전쟁' 시작 박지원 출마설...민주 경선 예측 불허

결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해온 경륜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오랜 의정활동 중 전남의 기반 산업인 농축수산업과 복지분야에 관심을 쏟아왔다. 최근에는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낙후가 심한 전남 중남부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남의 잠재역량을 활용해 해양산업과 생물의약 및 실버산업, 문화관광, 식량산업, 항공우주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전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의원과 여수시장 등을 역임하는 등 풀뿌리 정치에서 시작해 3선 국회의원이 된 주 의원은 국회 의정 활동 10년 중 6년을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순천만과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남도 고유의 문화예술과 역사, 많은 섬과 세계 5대 갯벌 등의 귀중한 자원을 기반으로 전남을 국내 물론 동아시아 환경해권 휴양 및 관광래저 분야의 블루오션을 만들겠다는 애심찬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실버산업 유통과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전남 발전의 모든 가능성이 자신을 바탕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전남, 살고 싶은 전남'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지사 출마 예정자

정당	민주당	인천수신당	민주당	민주당
이름(나이)	김영록(58)	김효석(64)	이낙연(61)	주승용(61)
주요경력	·국회의원(재선) ·민주당 원내부대표	·전국회의원 ·전·중·경 대경영대학 학장	·국회의원(4선) ·전국회 농림수산 위원장	·국회의원(3선) ·한국 국토교통 위원장

※ 후보는 아니다 순

사표를 던지면서 '전남을 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농수산업 중심지의 강점을 살려 권역별로 종합 품목을 특성화하는 '농수축산 산업벨트'로 끊어 생산·가공·유통 혁신을 통한 세계인류 농수축산업 단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다.

이들 3명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떠나 전남 동부와 서부, 중부권을 넘나들며 민심 접촉 행보를 넓혀가는 등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멘토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효석 전 의원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지난달 28일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위한 새정치주진위원회 구성 등의 입장을 밝힌 뒤 전남지사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안 의원측

의 새정치주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은 앞서 광주·전남 발전 구상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지역 출신 학계·재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광주·전남 발전 전략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행보를 펼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전남지사 출마를 위한 수순 밟기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슈&변수

F1 지속 개최 여부가 최대 쟁점

안철수 바람 어느정도 일지 관심

차기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주요 쟁점은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코리아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F1의 경우 조직위원장장을 겸직하는 도지사의 의중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차기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F1 대회에 대해 시각차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F1 대회는 "잘못됐다"며 "F1 대회 개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낙연 의원은 F1 대회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면서도 득과실이 있는 중립적 입장이다.

김영록 의원은 F1 등 적자규모가 큰 사업은 손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평가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종합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도 F1 대회 개최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변수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출마 여부와 함께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것이다.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 인지도 등이 높다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자신은 전남지사 출마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지역 민들의 출마 요청 여론도 있어 어떤 정치적 변수가 작용할지 모른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농촌지역이 다수인 전남에서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남의 경우 민주당 텃밭으로 상당한 지지기반이 있는 만큼 '안철수 신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보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지만, 특정 후보를 거론할 경우 지지도가 민주당 후보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에서 '안풍'(안철수 바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슈&변수

장교육감 무죄땐 재선대로 탄탄

기호②번을 누가 뽑느냐가 관건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는 내년 1월까지 예정된 장만채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결과다.

1심 선고처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성이 나오면 선거판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물밀에 잠복해 있는 후보군들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심을 뒤엎고 무죄가 선고되면 장 교육감의 재선은 탄탄대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진보진영이 계속 장 교육감을 지지할 것인가 여부다. 최근 지역 진보계열 단체들이 재판결과에 실망을 표시하고 장 교육감을 비난하고 나선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도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와 공조는 하고 있지만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넓은 선거지역과 노령층이라는 지

역적 특성도 주목할만하다.

22개 시·군에 이르는 넓은 선거지역을 누가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선점하느냐다. 입지자들은 일단 전지근 무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입지자들의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데다, 교육계에서만 주로 활동한 탓에 선거운동에서도 교육계민을 겹돌아 직선제에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기호②번을 뽑는 후보가 당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노령층 유권자가 많은 전남의 특성상 민주당 선호사상이 강해 민주당 자리에 이름을 옮긴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묻지마 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만채 교육감 항소심 판결 따라 선거판 요동칠 듯

전남도교육감

대학총장 출신 VS 보통 교육전문가 구도

학부모와 스키니 ... "시행착오 이제 그만"

있지만 느긋하다.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을 자주 찾아 학부모·학생들과 스키니를 강화하며, 견의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전교조 진영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지만 진보라기보다 실용적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다른 지역의 진보교육감들이 정부와 맞설 때 장 교육감은 고교 학력 제고를 목표로 한 '거점고 육성 사업'을 추진, 교육부로부터 2600억원을 끌어온 게 대표적 사례다.

대학총장 출신들에 맞서 전남도교육청 고위간부를 지낸 김승희 전 교육국장과 정현석 전 기획관리국장이 이를 다향하고 있다.

동아인재대 김경택 총장도 차기 교육감을 목표로 뛰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총협의회 회장을 자주 찾아 학부모·학생들과 스키니를 강화하며, 견의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대학총장 출신들이 맞서 전남도교육청 고위간부를 지낸 김승희 전 교육국장과 정현석 전 기획관리국장이 이를 다향하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출마 예정자

이름(나이)	김경태(56)	김승희(63)	정현석(55)	정만채(61)
주요경력	·동아인재대 총장 ·광주·전남총협의회 회장	·동신대 초빙교수 ·전·도교육청 교육국장	·전남도립대 교수 ·전·순천대 총장	·전·전남도 교육감 ·전·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 후보는 아니다 순

김 전 국장은 "교사·교감·교장·장학사·장학관·연구원장 등 교직의 모든 직위를 거친 보통교육·전문가로 최근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보통교육 전문가가 보통교육을 담당해야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다. 한 번의 시행착오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정 전 국장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전남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이 조화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국장은 전남도교육청 청사와 교육정보원 이설, 학교 최적화교실 가꾸기사업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교육행정의 달인이었다. 정 전 국장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전남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이 조화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청렴은 희망입니다.

교직원으로서 당당하게,

학부모로서 떳떳하게,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우리 모두의 꿈과 미래는 커져갑니다.

